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사도신경 외우기... 노래극... 인형극...

어린이들이 주관하는 헌신예배도

●●●●●오늘은 어린이주일●●●●●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청소년의 달이다. 우리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과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그리고 12일을 아버지주일과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된다.

어린이주일을 맞아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기로 하였고, 해당부서에서는 이날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였다.

탁아부(부장: 이영기 장로, 지도: 이영희 집사)에서는 ‘사도행전 외우기’를 한다. 오는 16일(목)에는 학부모초청좌담회로 가질 예정이다.

유치부(부장: 이재권 장로, 지도: 홍영록 선생)에서는 교사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노래극 ‘선한 사마리아인’ 공연한다.

어린이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유년부(부장: 최종시 장로, 지도: 이성진 목사) 교사들은 4일(토) 노방전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은 어제 전도

를 통해 초청한 어린이를 포함한 유년부 모든 어린이를 위해 인형극을 공연한다.

초등부(부장: 나희주 장로, 지도: 박종상 교역사)에서는 어린이 헌신예배를 드린다. 어린이들이 예배의 사회, 기도, 찬양대 지휘, 반주를 직접 담당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탁아·유치·유년·초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재롱잔치와 찬양의 순서가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어린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다. 어린이주일인 오늘, 어린이들을 통해 교훈을 얻으며 우리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돕는 주관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 생명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의 순진함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시민으로 자리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다.

건축기금 모으고 친교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고

1, 2일 『모임과 나눔의 장』 성황



◀개장식(1일 오후 12시 30분)

▲“하나 사고, 하나 팔고, 벽돌 한 장 올리고...”

1일과 2일에 있었던 『모임과 나눔의 장』, 짧은 준비기간, 충분하지 못했던 홍보 그리고 행사 전날 이틀간에 걸친 곳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바자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기도 비교적 좋았으며 시종일관 화기에

애한 가운데 전교인 가족수련회를 방불케하는 친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 여전도회원은 “이번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잘 모르던 회원들과의 서먹함이 사라지고 친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중고품과 기증품코너였던 3층에서

는 물품 재활용의 가능성과 생활의 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으며, 교회 주변의 주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던 이번 행사에서 물건을 팔면서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여전도 회원들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당 부지를 생각하면 피곤함도 잊을 수 있다고 했고, 하나 팔고 하나 살 때마다 새 예배당의 벽돌이 쌓여가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새 예배당 건축을 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만큼 비록 주최는 여전도회에서 했지만 남선교회원들, 찬양대원들, 교회학교의 학생들도 한마음으로 어울려진 행사였다.

이번 『모임과 나눔의 장』을 주관한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 이연숙 집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수익금은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 되었다고 한다.

창세기
강해

고난 중의 형통

(창세기 39장 20절 - 23절)

이종운 목사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결코 자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 3,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투옥된 요셉에게 있어서 환경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1. 경영자가 되기 전 참인간이 된 요셉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가정 총무였던 요셉은 감옥에서도 치리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책임자의 위치에 오른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진리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 안에서 그는 참 자유자였습니다. 죄수들 중에서도 그는 진실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은 감옥에서 더 성숙해졌습니다. 같은 환경에 있던 죄수들은 그 현실에 원망, 불평, 절망의 탄식소리만 내뿜었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는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인들에게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부모형제를 떠나 있는 자 답지 않게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분명했습니다. 자기 특권을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안 요셉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뢰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불평하거나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 면전에서 그의 힘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으로 미래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인도하셨고 요셉의 중대한 일들에 한결같이 관여하셨습니다. 범사에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23절).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애굽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그 해

몽을 요구했을 때 요셉은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대답하거나 자기의 경험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꾸었던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의 몸으로 팔리우고 그 자리까지 오게 된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아니하니이까"(창40:8)라고 한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급급해서 불안하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6~7절)라고 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감옥은 요셉의 성품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 옥중에서 힘을 얻은 이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그 죄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이같은 예언이 환영받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투옥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 상과가 없을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외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다고 해서 그의 외침이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삼손은 그가 투옥된 동안 육신적인 힘을 회복했습니다. 사사로서 가장 찬란한 업적을 가졌던 삼손이 블레셋 여인 데릴라로 인해 약해졌습니다. 머리털이 잘리우고 눈이 멀어버린 채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모습은 처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힘을 회복한 그는 죽는 순간에 생전에 죽었던 수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삿16:30).

복음을 증거하다가 밧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은 거기서 일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곱교회를 대표한 일곱 촛대 사이에 서세신 영광의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계1:9 - 17). 요한에게 있어서 유배지였던 밧모섬은 그가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차례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고후6:5).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를 맨 쇠사슬이 그를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빌1:15 - 17) 옥중서신을 쓴 것, 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 기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크나 큰 유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에 진보가 있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과 용기를 주었으며 심지어 불신자를 회심시키는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 역시 감옥에서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시50:15).

✧ 순례자 컬럼 ✧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하라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인다면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셨다.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아야 한다. 사람마다 단점이 있듯이 또한 좋은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려면 그가 한 일을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 일이 실패했다고 하여 일꾼을 과소평가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자기의 필요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에게서는 실령 필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일 수도 있음을 알고 주님의 필요에서 그를 재인식하고 발견해야 한다.

무익한 자를 유용한 인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평가 절상을 위해 힘을 다하여 기도하자

부서의 이름 때문에 자칫 아기를 맡기는 곳 정도로 여기기 쉬우나 탁아부는 갓 태어난 아기에서부터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부서이다.

주일 I, II부 예배시간, 부모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기들도 탁아부실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현재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다소 아쉬운 점이 많지만 연령에 맞게 3개반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탁아부에 처음 와서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울던 아기들도 몇 주만 지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을 곧 알게 된다. 탁아부에 꾸준히 출석하는 아기들의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큰 차이가 날만큼 예배와 교회생활에 적응을 한다.

탁아부의 한 교사는 "산만하던 아이들이 점차 흐뜨러짐없이 예배에 집중하는 등 참석의 회수가 거듭될수록 유아의 정서발달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을 거의 모든 아기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힌다.

탁아부는 오는 16일(목) 오전 11시에 학부모초청좌담회를 갖는다. 강사는 아세아연합신학원에 재학중인 이영희 집사로 학부모들은 영

■우리부서는요 - 탁아부



적 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강의를 듣고 좌담회를 가지며,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모처럼 어린이와 학부모가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셈이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은 '사도신경외우기'를 하는데 찬양(주기도문송)을 통해 익숙해진 주기도문과는 달리, 사도신경은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것이어서 한 구절만 외우더라도 푸짐한 상품을 주어 격려하기로 했다고.

탁아부에서는 인격형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영적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첩경임을 강조하면서 36개월 미만 유아의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탁아부의 예배는 주일 9시와 11시 두차례이다.

“아기 맡기는 덴가요?”

36개월 미만 유아를 위한 교회학교
예배 오전 9, 11시 두차례

◆탁아부 기도제목 중 유아를 위한 기도

1.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녹명(錄名)되게 하소서.
2.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3. 교회와 가정에서 불의의 사고없게 하소서.

■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⑧ - 참가국 ⑤



괌 (Guam)

- 면적 - 549Km².
- 인구 - 150,000명(1995년도 현재)
- 종족 - 미크로네시아 48%, 유럽계 아메리카 14.3%, 아시아 29.5%, 기타 7.6% (미군과 그들의 부양가족이 총인구의 15%)
- 공용어 - 영어, 차모로어
- 수도 - 아가나
- 경제 - 수십년간 미군과 연방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왔으나 최근 관광산업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괌 인구의 약 45%는 정부에 고용되어 있다. 1인당 국민소득 \$9,885
- 정치 - 1565 ~ 1898년까지 스페인이 통치. 그후 미국 영토가 됨. 미국에 합병되지 않은 자치령. 괌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 종교 - 카톨릭이 400년간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됨. 기독교 94.8%(그중 개신교 13.7%)
- 선교사 -
 - 괌 사역 선교사 - 17개 단체의 159명 (인구 840명 당 한 명의 선교사)
 - 괌 파송 선교사 - 1명 (개신교인 1,800명 당 한 명의 선교사)
 - 자비량선교사 - 1명

■ 괌은 지금

하와이 서남서쪽 6,000 Km에 걸쳐 펼쳐진 마리아나 군도 가운데서 최남단에 위치한 가장 큰 섬인 괌은 미국 영토인 3개의 조그만 섬(존스톤 아일랜드, 미드웨이, 웨이크)도 포함된다.

- ① 우세한 세력의 카톨릭 - 차모르족 사이엔 카톨릭 세력이 우세하다. 그들 중 성경을 읽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자.
- ②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개신교 - 개신교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착민과 이주민 가운데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자. 이민공동체는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다. 그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사회적으로 동화되도록 기도하자.
- ③ 선교단체의 주요 사역 - 군대에 치중되었던 선교단체들의 활동이 토착민과 이주민을 위한 교회 설립, 성경공부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자. 아울러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가 복음화로 해결되도록 기도하자.

④ 교도소 선교 - 괌교도소선교회(Prison Fellowship of Guam)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발전시켜왔다. 이 사역을 통해 복음주의 교회들의 상호연합이 촉진되었다. 개종한 재소자들을 위한 적절한 갱생 프로그램 연구를 위해 기도하자.

⑤ 기독교 라디오 방송 - 매주 170시간의 프로그램으로 남부와 동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이 있다. 그 중 115시간은 태평양 지역의 언어뿐 아니라 중국의 5개 언어로 방송된다. 이 중요한 사역에 속한 43명의 선교사들과 간사들을 위해 기도하자.



모임과 나눔의 장

스케치



▲ 3층 중고물품 및 기증품 매장



“마리아커피 한잔 주세요” - 마리아전도회에서 담당하는 커피코너. ‘여전도회’라는 글씨를 쓰지 않았더니 지나가던 사람은 아마도 커피의 이름이 ‘마리아커피’ 인줄 알았던 모양.

· 이색적인 ‘모임’과 ‘나눔’ - 원가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든 산지(전라도 창평)직송 파.

떡볶이 한접시에 천원, 사람에게 따라 만원?

· “사가기만 하시면 10만원 버는 겁니다” - 한 성도가 잇가 15만원의 상품을 기증했다.

『모임과 나눔의 장』에서의 판매가는 5만원. 이 귀절은 바로 그 코너에 써붙여 있던 홍보문구. 참 이상한 계산법.



◀ 옥상의 먹거리 장터 ▲ 교회 앞마당에 선 『모임과 나눔의 장』

· 풍성했던 나눔 - 특별히 먹거리 장터의 인심이 너무 후한 탓에 소화제를 드신 성도가 많았다고.

목회자·교우 동정

- * 제 18회 강남노회 정기회가 7일(화) 오전 9시부터 소망교회당에서 열린다. 우리교회에서는 이종운 목사를 비롯, 부목사 전원과 장로 총대 7명이 참석한다.
- * 김상철 집사(4교구, 예배위원)는 중국태평양협회와 중국개혁발전 연구원, 중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가 공동주최하여 중국에서 열리는 ‘태평양과 중국’ 주제의 국제심포지움에 주제발표자 2일에 출국 하였다.
- * 박정선 집사(11교구, 할렐루야찬양대 지휘)는 11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열리는 인천시립합창단(지휘:윤학원) 제창 단연주회에서 자작곡 인천 미사(Inchon Mass)를 발표한다.

길동무

○...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각별한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며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의 책임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지움을 당할 만큼 컸다.



○...우리나라 교회는 매년 5월 첫주를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 유래는 알려진 바 없으나 1856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한 교회 목사님이 어린이주일을 제정하는 취지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어린이의 헌신과 부모·보호자의 재헌신을 위해” 일년 중 한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이후 감리교와 장로교 등 각 교파의 총회에서 이날을 어린이 주일로 준수토록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이날 들과 산에 만발하는 꽃을 가져다가 교회를 장식했다고 해서 “꽃주일”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 어린이주일에는 교회에서 어린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면서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는 날이다. 주체하기 어려운 만큼 많은 정보홍수 속에 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자성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날인 것이다.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자. 우리의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주님의 품안에 있어 아하는 소중한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제 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7월 20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대중문화와 교회 (전대련 박사)
- 8월 27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급변하는 사회와 21세기 비전 (이원설 박사)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돌주론 초강」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새벽의 강단 매 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어린이이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2. 교회학교를 위하여
3.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하여
4.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교회가 새로와질 수 있도록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